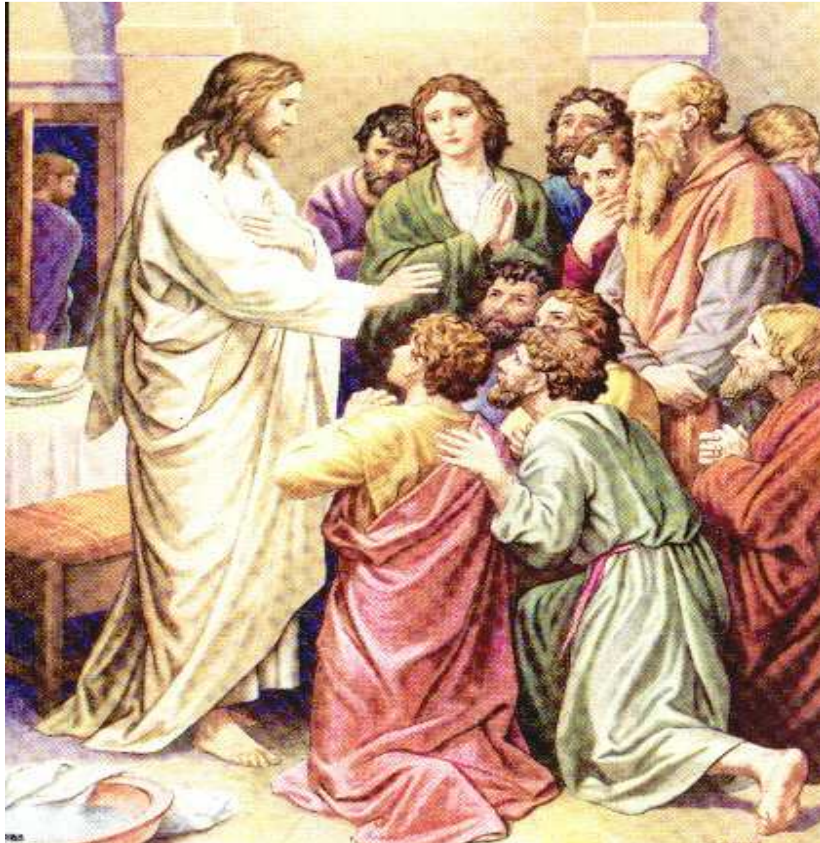


## 2013 5.5 부활제 6 주일

**제 1 독서 : 사도행전 15,1-2. 22-29** <성령과 우리는 몇가지 필수 사항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 2 독서 : 요한묵시록 21,10-14, 22-23**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복 음 : 요한 14,23-29**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오늘제 1 독서에서는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고 결국 사도들과 원로들은 바르사빠스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들 편에 결정된사항들을 담은 편지를 보내어 바로 잡아 줍니다. 오늘 읽은 요한 복음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또한 상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이라는 말의 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상대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냥 내식으로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이기주의로 상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철학에서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구분하여 다룹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안에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기주의는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느님을 믿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면 개인주의는 개인이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하느님의 지혜로 살아가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주의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기분대로 행동하며, 따라서 그 행동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만을 위한 것이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을 보면 부부가 서로 열심히 사랑을 하는데도 상대가 안 받아 준다는 하소연 들을 종종 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식의 사랑을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연애시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는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 주기 위하여 온갖것을 해주었던 것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하는 일념으로 자식들에게 자신의 생각들을 주입시키려고 하시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면 그것만이 최고 인것으로 생각하신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 방식을 하느님께 뒤집어 씌우고 있지는 않는지? 초기공동체의 모습이 제 1 독서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과 논란이 있었던 공동체의 신자들은 사도들과 원로들이 보낸 편지를 읽고 그대로 순명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순명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두분의 교황이 서로 만나시는 흔히 일어날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임 교황인 베네딕토 16 세께서는 현 프란체스코 교황에게 순명을 서약하셨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겠습니까? 다시 복음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순명, 성령, 평화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곧 있을 당신의 승천을 예고 하십니다. 당신이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셔서 우리가 있을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 하십니까? 얼마전 가톨릭 신문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많은 신자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 2 독서와 복음 말씀대로 천상의 삶을 꿈꾸고, 하느님께 영광을 노래하는 그곳에서 영생의 삶을 얻기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기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고통을 이겨 낼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시련이 없을 것 같습니까? 교통사고도 안일어나고 암과 같은 질병에도 걸리지 않을것 같습니까? 세상안에서

일어나는 시련과 어려움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좌절해서 쓰러지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께 대한 믿음으로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느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냥 포기 하고 넘어질수도 있는데 기도하며, 하느님의 힘으로 그 역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전임교황님께서 그자리를 내어놓으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시지요. 교황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영광스럽고 그 어떤누구도 누릴수 없는 존경과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자리일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감히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자리이지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그자리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하느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 느낌대로 믿고 사는가?

이 미사중에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5,1-2.22-29

그 무렵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그때에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빠스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스였다. 그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유다와 실라스를 보냅니다. 이들이 이 글의 내용을 말로도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면 옳바로 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21,10-14.22-23<또는 22,12-14.16-17.20>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열두 성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두 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에 성문이 셋, 북쪽에 성문이 셋, 남쪽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고 어린양이 그곳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23-29<또는 17,20-2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28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